금산분리 완화 기대 반영 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 확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CVC 규제 개선, 지주사 리스업 허용 등 거론
SK하이닉스가 대표 수혜. 다만 실제 적용 타임라인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 필요

예상 수혜 기업을 선별할 시점

12월 11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주요 경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식시장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과거 수년간 해당 이슈는 은행의 생활 서비스 진출 허용 범위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영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멘텀은 금융 산업의 확장이 아닌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 조달 채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검토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지분율 요건(100%)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해 50%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생산 설비 대여 목적 금융 리스사 보유 허용도 논의 중이다. 이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현실적 대안으로 풀이된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HBM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지주사의 리스업 진출 허용도 고가의 장비를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 외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기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이 원자재 확보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GS나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또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의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GS그룹의 경우 지주사 차원에서 벤처 투자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 상향으로 대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 가능할 수 있다. 셀트리온 역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M&A와 파이프라인 확보에 긍정적이다.

다만 12월 11일 업무보고가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통과까지 타임라인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가시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상기 주도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

박기훈
khpark@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1> 애상 규제 완화 항목 및 기대 효과

규제 완화 항목	현행 규제	개선 방향	효과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 보유 의무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분야에 한해 50%로 완화	합작법인(JV) 설립 가능: 해외 기업과 5:5 합작 투자 허용으로 자금 부담 반감
일반지주사의 금융사 보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리스업 불가)	설비 대여 목적의 '기업형 리스사' 보유 허용	CAPEX(설비투자) 절감: 고가 장비를 직접 사지 않고 계열 리스사에서 빌려 사용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CVC 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40%까지만 조달 가능	외부 자금 조달 한도 50% 이상으로 상향	M&A 실탄 확보: 외부 큰손들의 자금을 더 많이 끌어와 유망 AI/기술 기업 인수 가능
투자 구조화 지원 (리츠/SPC 활성화)	공장 등 생산 시설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	부동산 펀드(리츠)·SPC 가 공장을 짓고 기업은 임대 가능	유동성 확보: 건물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을 R&D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

자료: 언론 종합, 한국투자증권

<표 2> 규제 완화 항목 별 수혜 기대 기업

규제 완화 항목	수혜 기업	기대 효과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합작법인(JV) 설립 활성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SK 하이닉스: 해외 소부장 기업과의 5:5 JV 설립이 가능해져 용인 클러스터 투자비 분담 및 기술 제휴 용이 · LG 에너지솔루션: 국내 소재·부품 기업과 JV 설립을 통한 공급망 내재화 및 설비 투자비 절감 · 포스코퓨처엠: 지주사 구조상 제약이 있었던 해외 광물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가능해져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
일반지주사의 금융사 보유	SK LG	[계열사 CAPEX 지원 및 수익원 다변화] · 지주사 산하에 산업장비 전문 리스사를 설립, 고가의 설비(EUV 등)를 매입 후 자회사에 대여 · 자회사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Initial Cost)을 절감하고, 지주사는 안정적인 리스 수익 확보
CVC 외부 자금 조달 확대	셀트리온 GS	[대규모 M&A 재원 확보] · 셀트리온: 외부 자금 유치 한도 상향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인수를 위한 대형 펀드 조성 유리 · GS: 그룹 차원의 신성장 동력(AI, 친환경 등) 발굴을 위한 벤처 투자 확대 및 포트폴리오 강화
투자 구조화 지원 (리츠/SPC 활성화)	SK 리츠 (부동산 금융)	[자산 유동화 및 현금 흐름 개선] · 그룹 내 산업용 자산(Fab, 공장)을 매입·운용하여 자회사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 · 그룹사의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 역할 강화 및 AUM 확대

자료: 언론 종합, 한국투자증권

true friend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